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도발망동을 부린 박근혜역적패당의 소굴부터 초토화해버리고 남반부를 해방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을 지도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연설자는 곧바로 전선대련합부대 최정예 포병전투원들에게 수명결사용위의 신념, 멸적의 중요성을 만장약한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전을 벌려 박근혜역적패당이 등지를 못하고있는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혼적도 없이

남려보내자고 격조높이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전감시소에 오르시여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연습개시명령을 내리시였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남으는

포탄들이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괴뢰반동통치기관들을 가상한 목표들을 집중적으로 맹렬히 타격하였다. 멸적의 강철포신들이 시뻘건 불줄기를 연해연방 내뿜었다. 우뢰같은 폭음은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 다져진 증오와 분노, 람울길 없는 보복일념의 강렬한 메아리였으며 멸적의

불줄기는 박근혜《정권》에 비참한 종말을 안기는 준엄한 천수였다. 《적》의 소굴들은 불도가너로 화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웅한 전선포병들이 목표들을 사정없이 두들겨패는 것을 보시고 가슴이 후련하게 정말 잘 쓴다고 하시면서 타격이 매우 정확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습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대단족을 표시하시고 연습에 참가한 전체 부대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4 면 으 로 계 속

